

게시판



혜거 스님과 참선 수련 금강선원은 7월 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 수련회' (사진)를 실시한다. 대학생이상 남녀 일반인을 대상으로 7월 22-25일, 7월 29일-8월 1일, 8월 5-8일에 각각 실시되는 이번 수련회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금강선원 수련원에서 진행될 예정. 참가비는 6만원이다. (033)433-5845-6.

지리산 어린이 여름학교 인드라광생명공동체는 장애·비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리산 어린이 여름학교'를 실시한다. 남원 실상사 일원에서 7월 25-30일 비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첫째마당에 이어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둘째마당은 8월 8-13일 진행된다. 모집은 7월 9일까지. (063)636-3776

시흥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시흥장애인복지관은 6월 29일 오후 3-5시 복지관 강당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俳優로 인형극 '팔죽할멈' 공연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031)431-9114

동산반야회 불교교리강좌 동산반야회는 7월 6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불교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재일 법사의 지도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법당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연기실' 등 총 8강좌로 꾸며질 예정이다. 수강료는 5만원. (02)732-1206

20면 상식 퍼즐 정답

출	님	기	단	결	권
기	병	기	권		
세		마	애	불	
포	세	이	돈	망	
		키	메	라	
가	가	호	호	조	
감		테	리	우	스



시원하게 펼쳐진 양양 낙산해수욕장은 낙산사와 인접해 사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피서지다.

사진제공=양양군청

무더위 씻고 마음도 기법계

올 여름 피서 사찰이 있는 바다로 떠나볼까

다시 여름이다. 봄인가 싶더니 금방 더위가 찾아왔다. 집에 있어도 사무실에서 일해도 더위를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때 때는 떠나자. 산도 좋고 바다도 좋다. 그런데 산과 바다를 한 장소에서 만끽할 수 있는 사찰들이 있다.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히고 인근 사찰법당을 찾아 마음을 다지는 피서거양득 아닐까? 여기서 잠깐. 서해는 6월 25일, 남해는 7월 1일, 동해는 7월 10일부터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한다.

■ **양양 낙산사** 지난 4월 화마로 적지 않은 전각들이 소실돼 전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낙산사. 그러나 불자와 시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바다를 굽어 보고 있는 해수관음상과 국내 3대 관음기도도량인 흥련암은 24시간 기도객들을 맞고 있다. 낙산사 옆에는 동해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낙산해수욕장이 있다. 해수욕을 즐기고 낙산사에 올라 작은 정성을 보태면 이것이 바로 금강철화!(033)672-2448

■ **강릉 등명력가사와 동해 감추사** 일출의 명소 정동진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등명력가사(033-644-5337). 사찰 입구에 있는 등명감로약수는 빈혈, 성인병 치료에 좋고 만성피부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청자로 빛어낸 '오백나한상'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불거리다. 동해 감추사(033-532-9623)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해변과 기암괴석이 한데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무릉계곡과 백사장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추암해수욕장은 벌써부터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부산 해운정사와 용궁사** 부산의 명소 해운대해수욕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해운정사(055-746-2256). '남진제 북송담'의 진제스님이 조실로 주석하며 후학과 불자들을 제접하고 있는 도량이다. 감로수와 같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끝없이 펼쳐진 남해안의 해수욕장에 몸을 맡기는 것은 더없이 좋은 피서.

■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두 사찰 모두 30여분 거리에 해수욕장이 있다. 북반자와 장어, 수박으로 유명한 고창의 선운사(063-561-1422)는 입구에서 도솔암에 이르는 긴 계곡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것이 특징. 인근에는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해수욕장이 있다.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내소사(063-583-7281). 최근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변신해수욕장과 체석강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격포해수욕장이 지근거리에 있다. 그리 갓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서해의 대표적 해수욕장이다. 이외에도 강화 보문사(032-933-8271), 서산 간월암(041-662-2723), 김제 망해사(063-543-3187) 등에서는 서해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남해 망운암(055-863-3095), 여수 향일암(061-644-4742) 등도 남해의 멋진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화마를 다행히 피한 낙산사 보타전을 참배하는 관광객들.

엄마가 사랑에 빠졌을 때

마더(Mother) 감독: 로저 미첼 출연: 앤 레이드, 다니엘 크레이그 상영시간: 100분 등급: 18세 이상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초월한다. 하지만 불륜(?)의 사랑은 늘 윤리적 문제와 실존의 선택에서 갈등하기 마련이다. 60대를 훌쩍 넘긴 고목나무 같은 몸에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영화 '마더(Mother)'가 바로 그것.

딸이 해준 저녁을 먹은 남편이 갑자기 그날 밤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시간은 얼마나 지났을까. 자상한 엄마이자 순종과 아내였던 '메이'의 가슴에 불바람을 몰고 오는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친구 '대런'. 낮 동안 아이들의 집을 수리하는 대런과 하릴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 메이는 차츰 그의 자유롭고 맑은 영혼에 빠져들게 되는 데...

윤리적 갈등은 '엄마 메이'의 사랑을 짓누른 압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자 메이'의 사랑이 우선이었었던 것이다. 영화 후반부

대런의 패악(悖惡)은 리얼리티의 강화라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중년 여성의 몽환적 사랑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에 충분하다.

자칫 추해보일 수 있는 엄마의 선택과 사랑을 증명한 연기와 섬세한 연출로 설득력을 더한 영화 '마더'가 시사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시대를 사는 여성들 아니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마음의 청량제'를 언제나 갈구한다는 화두를 던져준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가족을 위해 희생 희생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엄마'일지라도 말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공연

손진택-김성녀 한무대서 호흡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서 연출·연기

남편이 연출하고 아내가 연기하는 1인극.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다리오 포' 아내인 여배우 '프랑카 라메'가 '원 우먼 플레이'에서 보여준 시도지만, 한국에서는 그리 흔한 설정이 아니다. 이를 불자 부부 손진택(극단 미추 대표)-김성녀(중앙대 음악극과 교수)가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을 통해 보여줬다.



'벽속의 요정'의 한 장면.

'벽속의 요정'은 전쟁을 피해 40년 간 벽속에 숨어 산 가장의 얘기를 아내와 딸의 눈과 입으로 풀어낸 '뮤지컬 드라마'다. 이 작품에서 배우 김성녀는 4살 꼬마에서부터 70살 노인까지 30여에 이르는 남녀 캐릭터를 홀로 소화한다.

김성녀씨가 연기인생 30년 만에 도전한 생애 첫 모노드라마지만, 김씨의 카멜레온 같은 연기변신이 빛나는 작품이다. 여기에 남편 손진택씨의 세심한 연출력이 덧대진 작품은 불자 부부의 환상의 하모니로 완성됐다. 7월 24일까지 서울 청담동 우림 청담시어터에서 관람할 수 있다. (02)569-0696 강신재 기자

전시



명나라 화가 우빈의 '오백나한도'.

폭 53m 대형 오백나한도 공개

명나라 우빈작 ... 7월 17일까지 김제 청운사

특색한 형태의 나한이 묘사된 대형 두루마리 나한도가 일반에 선보인다. 하소백련축제위원회는 7월 17일까지 김제 청운사에서 명나라 우빈의 '오백나한인물도'를 공개한다. 우빈은 독특한 스타일의 회화로 이름난 명나라의 화가. 이번에 공개되는 나한도는 폭이 53m에 이르는 작품으로, 오백 나한의 형상이 제각기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험상궂은 얼굴과 잠에 빠진 얼굴 등 중생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얼굴에 담은 것이 특징. (063)543-1248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방송 프로그램

<p>BBS 불교방송</p> <p>27일 06:00 불교강좌 28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9일 11:05 아름다운 초대 30일 07:05 아침저널 1일 09:05 행복한 미소 2일 14:05 진시문의 낭만라디오 3일 10:00 라디오 법회</p>	<p>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p> <p>27일 08:00 명성음악산책 28일 15:10 명성음악 29일 19:30 열린마당 30일 15:10 휴먼다큐 1일 19:30 절로 가는 길 2일 16:20 부처님경전이아기 3일 15:20 산중대담</p>
--	---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7월 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6월 30일 아침 8:35-09:20) 동양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사랑지킴이

옛날부터 장승은 단순한 경계표나 이정표의 역할은 물론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각 마을 입구에는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승이 '사랑지킴이'로 다시 태어났다. '사랑지킴이'는 남녀간의 영원한 사랑을 지켜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까이 있는 연인과